

# 검찰, 윤장현 전 시장 기소 여부 검토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윤 전 시장을 기소한다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사칭한 김모(49·여·구속기소) 씨에게 빌려 준 돈과 6·13 지방선거 공천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특히 윤 전 시장과 김 씨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윤 전 시장의 수내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관련 조사를 마친 검찰은 현재 윤 전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론은 13일 판기를 앞둔 상태이다.

지난 11일 오전 11시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윤 전 시장은 조서(공직선거법 위반)를 열람한 뒤 최종 절차인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있어서 만큼은 의도적이며 일방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전 시장은 또 변호인과 측근을 통해 이 사건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시점 김 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김 씨에게 속아 돈을 빌려줬을 뿐 선거나 공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가 자신이 벌인 사기행각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윤 전 시장에게 사죄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피의자 진술을 채택할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한 만큼 이 점에 있어 별다른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다.

또 김 씨가 보낸 사죄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기행각을 이어오다 구속될 위기에 처할 시점 윤 전 시장에게 갑자기 용서와 사죄를 구했다는 것이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공천 지원 언급 등 김 씨의 여러 거짓에 속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빌려주는가 하면 시 신하단체와 광주 모 학교에 김 씨 자녀 2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 2명을 취업시킨 사실, 즉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

## 오늘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 공직선거법 포함되면 향후 법정 공방 예상

다. 책임 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빌려 준 돈과 공천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둘 사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돈을 건넨 시기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빌려준 돈과 공천 등 선거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선 지난 7일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사기와 사기미수 이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상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이 37지 모두의 혐의로 윤 전 시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공판 과징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추천정 기자



영하권 추위에 마스크는 필수 서울 아침 기온 -4도를 나타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여수시 낭만포차 설문조사 ‘객관성 결여’ vs ‘확대 해석’

서완석 시의장 “존치·이전 응답도 오차범위 내…동일 결과”

여수시가 실시한 낭만포차 이전과 존치 여부를 묻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서완석 시의회의 의장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시는 여론조사 결과 낭만포차 폐지는 강력한 이전 의사로 존치와 이전이 오차범위라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서 의장은 12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문조사 항목은 전반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인사말에 “낭만포차는 교통문제, 소음, 무질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은 응답자의 인식을 규정 또는 유도한 적절치 못한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낭만포차 이전과 폐지에 대한 집의는 구분해야 했음에도 하나로 묶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면서 “먼저 존치와 폐지를 묻고 그 다음 문제에서 현 위치 존치와 이전 존치를 물어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 존치 39.8%, 이전 42.2%의 응답에 따른 2.4%의 오차는 오차범위 내로 실제 동일한 결과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의 실제 표본오차와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4.2%로 그 범주는 8.4% 내외이다.

하지만 시는 소명자료를 통해 “이전 또는 폐지를 한 문항으로 묶어서 통계 분류한 것은 시민의견을 분명히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존치와 이전이 오차범위라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여수시의 명물로 부상한 낭만포차는 도심활력과 관광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과 무질서, 소음, 해양공원 기능상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이전 또는 폐지를 요구하면서,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썬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낭만포차 존치·이전’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540명 중 현 위치 존치 39.8%, 이전 42.2%, 폐지 8.7%로 조사됐으며, 낭만포차 이전에 찬성할 응답자 90.4%가 거북선 대교 하루 공간으로 이전을 찬성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강진 저수지서 실종 50대 숨진 채 발견

강진의 한 저수지에서 50대 남성이 실종 신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오전 10시46분께 강진군 칠량면 한 저수지에서 A(57)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혼자 살던 A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저수지 주변에서 A씨의 것으로 보이는 의복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변호관 위조’ 광주시청 공무원 입건

광주시청 공무원이 위조한 변호관을 자신의 차량에 달고 국립공원을 오가다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위조한 변호관으로 국립공원을 출입한 혐의(공인위조)로 광주시 6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조한 변호관을 자신의 차량에 달고 광주 무등산 원효지구 차량 통제소를 34차례 걸쳐 드나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등산 정상을 오갈 수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공군부대 측 차량번호와 같은 변호관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사진 촬영이 취미다. 장비를 들고 올라가기 힘들어 변호관을 위조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화재로 무너진 집서 50대 남성 시신 발견

화재로 무너진 주택에서 나흘이 지나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정읍시 신대인읍 한 주택에서 A(5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주택은 지난 8일 오전 5시48분께 불이 나 무너진 상태였다. 경찰은 굴착기를 동원해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던 중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불에 타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불이 난 당시 주택 안에서는 A씨를 포함해 4명이 도박판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틀 사이 다툼이 벌어져 석유난로가 넘어지며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가족은 지난 11일 “며칠째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 했다.

경찰은 도박판을 벌인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훼손이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어머니 집에 불지른 20대 아들 영장

무속인 어머니가 돈을 요구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에 불을 지른 20대 아들을 긴급체포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A(24)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심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페트병에 담은 휘발유를 양초가 켜진 곳에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도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주택에는 어머니 B(45)씨가 있었지만 주민 10여 명과 함께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며 겨우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돈을 요구하며 부적 등을 구입하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함께 죽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